

## “질병 조기발견 위한 건강검사가 나의 건강관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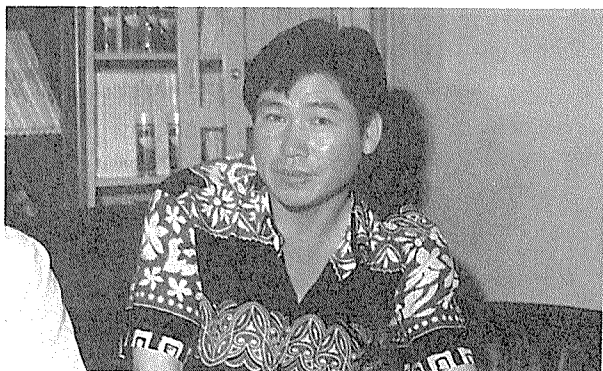
건협 부산지부 건강검사에서 간암을 조기발견해 건강을 되찾은 김병형씨



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잘 치료한다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을 정말로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때는 스스로 그 사실과 관련이 있는 일을 겪었을 때일 것이다. 이번 호에 소개하는 김병형씨가 바로 그런 경우일 수 있다. 그는 몇년 전 건협 부산지부에서 간암을 조기발견해 수술을 받은 후 꾸준히 관리해 건강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사실 질병이라는 것이 그렇다. 걸리지 않으면 좋고, 걸렸더라도 쉽게 치료되지만 한다면 무슨 걱정이겠는가. 그러나 소위 말하는 난치병, 불치병의 수준이라면 이견 문제가 된다. 앞서 말한 사실을 체험으로 깨닫기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결국 건강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건 체험보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몸만 해도 큰 재산이다.  
건강하기만 하다면  
어떤 어려운 일도  
극복하면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김병형씨.

### • 계속되는 위경련 때문에

'89년 연말, 김병형(40세, 삼성화재보험 동부산지점 근무)씨는 평소부터 갖고 있었던 위경련 발작의 주기가 연 1회에서 월 1회 정도로 빨라진 것을 느꼈다. 당시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던 그는 계속되는 스트레스, 과음과 흡연 등으로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는 늘 하던대로 병원에 찾아가 약을 지어 먹었다. 그러나 위경련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그는 종합검사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주위의 소개로 알게 된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의원을 찾아와 간기능 검사를 비롯한 건강검사를 받게 된 것도 그 때의 일이었다.

### • 검사 결과는 “간암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는데

검사결과는 뜻밖에도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위경련과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간암”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놀람기도 하고 믿기지도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간암이라니. 그것은 곧 사형선고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앞이 캄캄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제가 책임져야 할 많은 부분들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모든 일들도 제가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씨의 얘기다.



김병형씨는, 『김성대 소장님과과는 이제 의형제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제 건강에 관심을 가져 주시니, 이분과 견협이 바로 제 생명의 은인이죠.』 라고 말한다.

그는, 아직은 간암 초기이므로 수술만 잘 되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밀검사를 권하는 부산지부 김성대 소장의 권고에 따라 종합병원을 찾아 갔다.

그런데 종합병원에서는 간암이 아니라고 한다. 김병형씨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견협의 결과가 잘못되었음도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견협 부산지부에서 검사를 받았고 같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종합병원을 찾아야 했다.

견협 부산지부 김성대 소장은 당시의 상황을, 『김병형씨의 경우는 암이다 아니다를 확실히 판정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초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가는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재검사를 거친 후 조심스럽게 “의심이 간다”는 판정을 내렸고 종합병원에서의 정밀검사를 권하게 되었던 거죠.』라고 설명했다.

### • 간암 초기에 발견해 수술로 치료가 가능했다

한편 김병형씨는 견협과 병원 사이를 오가기를 몇달동안 계속해야 했다. 그러던 끝에 정말 간암이라는 판정이 '91년 5월경에 내려졌다.

다행히 초기여서 암이 크게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로 치료가 가능했다. 그리고 그 이는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만 매달렸다. 수술 후 1년 동안은 요양하는 데 전념했다.



정기적인  
건강검사가 말로  
그 어떤 보약보다도  
더 확실하고  
과학적인  
건강관리 방법이다.

### • 건강한 몸만 해도 큰 재산

이제 건강을 되찾은 그이는 누가 봐도 간암 같은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 그가 이야기하는 자신의 건강관리법은 지속적인 검사를 통한 관리. 수술 직후 2개월마다 하던 간기능 검사를 이제는 6개월에 한번정도 하면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해 오고 있는 그는 정기검사와 함께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몸만 해도 큰 재산입니다. 건강하기만 하다면 어떤 어려운 일도 극복하면서 살 수 있지요.』라고.

### • 지금까지도 관심가져 주는 건협에 감사

김씨는 또 『건협 부산지부와 김성대 소장님께는 정말 각별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병원에서는 들어 볼 수 없는 자세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해 주시고 고민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되찾은 지금까지도 관심을 가져 주시니 제 생명의 은인은 바로 건협 부산지부가 아니겠습니까.』라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자신을 살린 것은 바로 조기발견이었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통한 건강관리야 말로 그 어떤 보약보다도 더 확실하고 과학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